

애경, 중국에 치약 170억원 수출

대형 유통기업 통해 공급 ... 2080치약 비롯 칫솔 · 구강청정제도

애경이 중국 치약시장에 본격 진출한다.

애경은 중국 Gunagzhou에 본사를 둔 화맥하달무역유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1300만달러(한화 170억원) 상당의 <2080> 치약과 칫솔을 공급기로 했다고 6월1일 발표했다.

생활용품 유통전문 기업 화맥하달무역은 중국에 680개 위탁판매망과 34만개 대리점을 비롯해 1600여개의 대형상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.

애경은 화맥하달무역을 통해 2080의 치약, 칫솔, 구강청정제, 치실 등 구강케어 전 품목을 중국 전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.

화맥하달무역은 까르푸(Carrefour), 월마트(Wal-Mart), 왓슨(Watson) 등 대형 유통기업을 통해 우선 판매할 예정이며, 2080을 알리기 위해 중국 최대 중앙방송인 CCTV에 조만간 광고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.

애경 고광현 전무는 “2080의 수출국은 중국을 비롯해 미국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, 러시아, 이란, 몽골 등 총 13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”며 “중국 로컬 치약 브랜드인 티엔치(田七)의 영업을 10년간 담당했던 화맥하달무역의 영업망과 영업경험은 2080이 중국시장에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중국의 치약시장은 2008년 기준 120억RMB(2조2000억원)으로 연평균 10%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.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6/01>